# 잼버리 대원, 'K-불교 홀릭' 끝나지 않았다

**독일 스카우트 대원들**
**금산사 등 템플스테이**
**내소사서는 사찰 설화**
**의미 듣고 탄성 잇달아**
**금산사서 트로트에 열광**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소사 묘향 스님이 대원들의 안전한 일정을 기원하는 오색실을 손목에 묶어주고 있다.



독일 대원이 참석한 금산사 내비둬 콘서트에서 국악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8월 11일 폐영한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 참가한 독일 스카우트 대원들이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와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한국의 불교문화와 사찰 생활을 체험했다.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내소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40명의 독일 스카우트 대원들은 황토색 템플스테이 복장으로 갈아입고 독일어가 가능한 자원봉사자 마크 교수의 안내로 한국의 전통사찰의 건축물에 놀라움을 표했다.

내소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묘향 스님은 먼길을 달려온 독일 스카우트 대원들의 손목에 오색실 팔찌를 채워주며 한국에서의 예정된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하길 기원했다.

묘향 스님은 "부안에서 열린 잼버리 대회에 이어 내소사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소사에 머물면서 즐거운 상상만 하고 많은 위안을 얻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원들은 한국 사찰에서의 저녁 공양시간에는 생소한 한국의 채식문화에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뷔페식으로 제공된 음식을 모두 말끔하게 비워냈다. 이후 1배의 절을 할 때마다 염주 한 알을 꿰는 108대참회 합장주 만들기와 부채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샬럿 대원은 "오래된 사찰 건축물을 그냥 지나쳤을 수 있었는데 숨겨진 의미를 상세하게 알 수 있게 설명해주셨다. 아주 특별한 문화적 경험"며 "오래된 건물과 자연이 함께 만날 수 있어 더욱 좋았다"고 말했다.

길막 대원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사찰에서의 생활 모습과 스님들의 오래된 수행방법에 경험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며 "한국은 도시나 시골이나 모두 자연과 오랜된 건물이 함께 있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 여성대원은 스님을 경험해 보고 싶다며 삭발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과테말라 스카우트 대원 25명과 폴란드 대원 30명도 내소사를 들러 사찰에서의 생활을 체험했다.

김제 금산사에도 독일 스카우트 대원들이 들러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힘든 대원들의 일정을 감안해 실내에서 일정을 소화한 대원들은 금산사에 도착해 간단한 사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미륵전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만세루에서는 한국의 사찰 생활에 대한 영상을 시청한 후 여찬 스님의 지도로 참선과 명상을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처영문화기념관으로 자리를 옮긴 대원들은 한글 붓글씨 소원지 쓰기와 '내비둬 콘서트'에 참여했다.

내비둬 콘서트에는 젊은 국악인들이 출연해 가야금 연주, 판소리를 들려주며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도 가졌다. 또 가수 김용진이 출연해 K-트로트 음악을 선보였다. K-POP에만 관심을 가졌던 독일 스카우트 대원들은 생소한 트로트 음악에 빠져 함께 춤추며 한국의 음악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도 가졌다. 다음날에는 대적광전에서 108배를 하며 염주를 만드는 체험도 진행했다.

# 마산 정법사 천진불들, 백중 맞아 음성공양 '눈길'

**문수선음합창단, 백중 5재서 음성공양 법회**

**마산 초등생 25명으로 구성**
**8월 23일엔 승보공양 예정**


새로 창단된 정법사 문수선음합창단이 8월 16일 백중 5재를 맞아 처음으로 음성공양을 선보이고 있다.

통도사 마산 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가 불자 어린이들로 구성된 문수선음합창단을 본격 운영한다.

정법사 문수선음합창단은 8월 16일 경내 만불보전에서 봉행된 백중 5재와 초하루 법회를 맞아 처음 음성공양을 사부대중에게 선보였다.

이날 문수 선음합창단은 '어머님의 은혜' '천개의 바람이 되어' 2곡을 음성공양했다. 이어 문수선음합창단장과 지휘를 맡은 소프라노 김소라 씨가 고산 스님의 시, 연울림 작곡의 '열반의 노래'와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고 추억하는 '바람이 머무는 날에'를 불렀다.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어린이 합창단원 한명 한명에게 꽃다발을 전하며 창단을 축하했다. 또 정법사 분다리카 합창단은 문수선음합창단의 첫 번째 공식무대를 축하하는 답가로 '제망매가' '무상게'를 불러주며 어린이 합창단의 창단을 축하했다.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최근에 불교유치원 나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우리 선음 합창단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나오기 바란다"면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의 불성의 씨앗이 심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15일 어린이 포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의 뜻에 따라 창단된 문수 선음합창단은 마산지역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 25명으로 구성됐다.

창단 후 매주 토요일마다 지휘자 김소라 선생과 반주자 김아림 선생의 지도로 배려와 협력을 배우고, 어울림의 소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의 결실을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문수선음합창단은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란 뜻으로 아름다운 동요는 물론 찬불가를 배우고 부르며 불성을 씨앗을 틔우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법사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유치원인 '대자유치원'을 운영하며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백중기도 기간 중에는 前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7월 26일 2재 때는 월정사 교무국장 자현 스님의 초청 법회가 봉행됐고 3재와 4재 때는 '금강경' 독송 정진에 이어 문수선음합창단의 음성공양 등이 이어졌다. 8월 23일 봉행되는 6재 때는 스님들에게 의약품 등을 보시하는 승보공양이 봉행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선운사 도솔암, 수자령 천도법회 봉행

**8월 12일 극락보전 앞마당서**


지장기도도량 고창 선운사 도솔암(감원 성본)이 우란분절을 앞두고 수자령 영가와 태아 영가 천도재를 봉행했다. 〈사진〉

8월 12일 선운사 도솔암 극락보전 앞마당에서 봉행된 수자령 태아영가 천도재는 혜정 스님을 비롯한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불교전통방식에 따라 봉행됐다.

이날 천도재는 시련, 대령, 관욕에 이어 장학금 전달 관음무, 연화무, 상단불공, 영가시식, 소전의 순으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숨결 불교문화무용단(단장 이미정)은 관음무, 연화무, 수자령가 진혼무 등 불교창작무용을 선보였다.

도솔암 감원 성본 스님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세상을 빛을 보지 못한 수자령가와 낙태아 영가의 극락왕생과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업장소멸, 병고악난, 사건 사고 없이 건강과 행복, 소원 성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인연있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모든 영가들과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한국티베트문화학술연구원 설립

**8월 14일 현판식… 본격 학술활동 시작**


한국과 티베트의 문화 학술교류를 위해 한국티베트문화학술연구원이 8월 14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했다.〈사진〉

이날 설립 현판식에는 (재)정토사관자재회 이사장 능행 스님, 게셰 체링 노르부 인도 로셀링 사원 불교 철학 교수, 동화사 승가대학 무애 스님 등 사부대중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립된 한국티베트 문화학술연구원은 지난 2019년부터 (재)정토사관자재회 산하 단체로 한국 티베트 문화교류와 번역 및 도서 출간 등의 활동을 해오다 올해 8월 울산광역시 비영리단체로 등록하게 됐다.

향후 연구원은 △한국-티베트 문화연구 인력 배출 △불교 경전 한글 번역 출판 활성화 △한국-티베트 문화 관련 대중교육 등 한국과 티베트의 문화 학술 교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세종전통문화체험관, '건강한 먹거리' 특강

**유정희 이사장 초청해 진행**



기후위기시대, 건강한 먹거리를 생각해보는 강연이 열렸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관장 원묵)은 8월 15일 '기후 위기의 시대, 건강한 먹거리'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 강사는 유정희 자연음식문화원 이사장이 맡았다.〈사진〉

이날 유정희 이사장은 "음식이 인간을 단순히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닌,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정말 올바른 식생활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대중 강연했다.

강연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이번 특강을 듣고 음식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 수 있어 유익했고, 9월 사찰음식체험에도 참여할 생각"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특강 이후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오는 9월 유정희 이사장을 사찰음식체험 강사로 초청해 '한그릇 음식과 디저트'를 주제로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044)850-3100

신성민 기자

원
비담당 금산대선사
적
원로장 49재 회향식

일시 불기 2567년 8월 25일 (음 7월 10일) 오전 10시
장소 경남 김해 금강사
김해시 가야로 405번길 73-33 분성체육공원 내 호국성지

공동주최 : 범불교 종단협의회,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주 관 : 원로장 49재회향 봉행추진위원회

봉행위원
정오. 성각. 제원. 법장. 법융. 대붕. 자광. 경천. 평산. 혜운. 혜명. 지일.
선명. 청호. 석경. 법성. 법현. 대공. 정념. 혜광. 청운. 정성. 보혜. 보성. 대연
김성후. 왕호. 이대각심. 오도석. 이영산. 김율. 박용재. 자명심

자문위원장 (금산문도회 맏상좌 자광스님)
봉행위원장 (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집행위원장 (삼보조계종 사무총장 평산스님)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